# 조직화 대신 200만 명의 모세

## (출18:1~27)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조직화 대신 200만 명의 모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조직화 대신 200만 명의 모세'
공동체를 조직화하려고 하는 대신에 200만 명의 모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오늘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처가집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거기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으로, 그 이드로에게 일곱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맏딸이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출애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할례 사건이 있은 후에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둘을 처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이스라엘이 진을 짜고 장막을 치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과 외손자 둘을 데리고 사위를 찾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다는 내용이 앞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 출애굽 시키신 것과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도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고 맞장구를 치며 모든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 기가 막힌 것은, 모세가 장막 앞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사람씩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뭘 하나 봤더니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나 이웃과의 사이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

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얼추잡아 200만이고 250만까지도 추정될 수 있는 숫자가 모세 한 사람만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데,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드로가 볼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모세에게 건의를 한 것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라고 한 것이고,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한 것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체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조직화의 과정을 걷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제목을 '조직화 대신 200만 명의 모세'라고 정한 것입니다.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느냐?
우선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바는 분명합니다. 앞부분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공동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뜻하는 것은, 선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여준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가서 땅에서 성취되는 일은 선민에게 있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선민 개개인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와서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모세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가르쳐줌으로써 모든 개개인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공동체적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하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이러한 당위성에 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 당위성에 대해서 조직화의 방편으로 응답을 하게 되고, 우리는 교회를 조직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모이기만 하면 어차피 우리는 공교회로서 모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칭함을 받는데,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반드시 조직화로의 유혹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조직화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모범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조직화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본문이기도 한데 조직화의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는 참 합리적이고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200만 이스라

엘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에 비하면 탁월한 것으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그들이 다단계로 관리를 할 때에 얼마나 더 운용이 효율적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봤었는데, 좀 깊게 보니 조직화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문제제기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조직화를 했는데, 그 조직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것에서 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신명기는 주로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있는 책으로, 그 첫 부분인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회고를 하는 부분이 내용상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으니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쪽을 점령해놓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한 설교들인데 그 모든 과정을 회고할 때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조직화했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라는 정탐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가득차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그대로 진입해서 들어가면 될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60만 장정이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직화 이야기, 정탐꾼 이야기, 40년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야기로 회고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조직화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시내 산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 잘라버린 것은, 그 조직화 이야기가 정탐꾼 사건의 불 신앙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40년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의 시발점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조직화 한 뒤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간적으로 1년이 채 못 됩니다. 그 동안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중간 지도자들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200만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 이끈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 광야에서 60만 장정이 다 죽는데 중간 지도자들인 그들이 그 속에 속해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이고, 또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선발되는 과정을 신명기의 회고에서 보면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했고 모세가 그들을 발탁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칠 지경까지 갔던 적도 있었고, 200만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사로잡혔을 때 여론몰이를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으로 쏠려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내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선민들이 알아야 될 모든 법을 가르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시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명단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너희가 재판하고 이익을 쫓아서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달라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조직화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모세를 필두로 해서 다단계로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전달되듯이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중간단계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통과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어림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로부터 말을 듣고 행동한 적이 성경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방 땅인 미디안의 제사장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에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것인데 너무 어색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장인의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어차피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의 경험과 그 누구의 지식과 그 누구의 능력도 미치지 못하는 초월한 능력과 지혜를 통해 진행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었는데 갑자기 이드로가 끼어든 이유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불평하고 힘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상태가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200만 명을 매일매일 재판하는데 자기 힘닿는 데까지 하면 되었고, 200만 명의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민족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두 손 모으고 온 몸을 웅크려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지를 펴고 전쟁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죽으면 하나님이 임해서 저들을 처치하시겠다는 교훈으로, 손이 내려오면 지고 들려지면 이겼던 것은, 손을 든다는 것은 꼼짝 못한다는 것이고 마음에서 유품으로 넘긴다는 마음으로 할

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셨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9장 이후로부터 율법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실 때에 보시면 detail, detail, 이렇게 detail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여서 조직화의 과정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오류로 신명기에서 회상할 때에 자기 잘못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40년 광야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장정 60만이 다 죽게 되는 발단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잘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솔로몬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솔로몬이 20세 약관에 왕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상3:7-10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나옵니다.
20세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때는 모세 때보다 백성이 더 많아졌을 때인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세도 똑같이 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재판을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과제였는데, 그걸 왜 다 끌어안고 짜증을 내듯이 이드로에게 힘든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이드로의 말을 듣고 조직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눅12:13-15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문제인 재산을 나누는 일을 재판하시기를 거부하시는데 모세는 이 점을 놓쳤습니다.
돈 문제와 연관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해주기 전에 주님이 보신 관점은, 돈 문제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고 손해를 보는 자가 있는데, 손해를 본 자가 돈이 아까워서

마음에 그것을 가득 담은 채 예수님께 나와서 재판을 요청하자, 부당한 돈에 대한 재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돈을 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두 사람이 다 돈을 마음에 담고 진창에 빠진 것으로 진창에서 싸우고 있는데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을 다 진창에서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할 관점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 뿐,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과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법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개별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개별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체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개별적인 대답을 들으라는 것으로, 제사장을 통할지라도 개별적으로 대답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그랬듯이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모세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모세를 필두로 한 피라미드 조직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에서도 문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았더라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한 모든 삶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을 공포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1:1의 관계에 설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사이를 못 참았습니다.
이제 곧 19장에서부터 시내 산 사건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을 직접 들을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1:1의 관계에 서게 될 수 있었는데 조직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 봉사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곳으로, 백 명이 모이면 백 명의 솔로몬을 만들고 백 명의 모세를 만드는 곳일 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의 중관관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70년을 믿은 사람과 1년을 믿은 사람의 차이가 없을 만큼 동일하게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세가 솔로몬보다 잘 한 것이 아니고, 짧게 믿었다고 해서 솔로몬과 모세처럼 되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으면 그 즉시 모세가 되고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과제로 삼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죽는 일천 번제의 삶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천만가지 문제가 있다면 천만가지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지침을 가르치면 됩니다. 천만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다면 너에게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 그때 그때 죽어서 유품으로 남겨버리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만족했던 마음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세가 직접 개별적으로 주는 것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하시기를 거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천부장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이 여론몰이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지도자로 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받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던 자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딱 세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교회가 단계적으로 조직화를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구역조직이 있고 합니다만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십자가를 전하면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십자가를 받아서 일천 번제의 삶을 살며 100만 명의 솔로몬, 200만 명의 솔로몬과 모세가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조직화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200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인데, 그 일은 조직화로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은, 내가 전하면 장로님이 받아서 구역장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평신도와 장로님 가리지 않고 동일하고 평등하게 십자가가 전해져서 받아들이게 되면, 장로님도 일천 번제의 삶을 살고 일반교인도 일천 번제의 삶을 살며 그들이 직접 솔로몬이 되고 모세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꾸 조직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운영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결국은 교인들 전체의 삶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몸부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 읽어보면 우리에게 모델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경고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모세는 이 경고를 위해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색한 일이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모세의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마는, 그도 인간이고 잘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잘못을 따지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모세의 이 힘든 심정을 통해서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조직화의 유혹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조직화하지 말고 열 명이 모이면 열 명의 모세가 나타나게 하고, 백 명이 모이면 백 명의 모세와 백 명의 솔로몬이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20세 약관의 솔로몬은 모세보다 더 과중한 과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에 문제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시면서 생명의 문제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돈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진창에서 둘 다 빠져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솔로몬은 선취하고 있었고, 모세는 힘든 마음에 조직화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고, 나중에 신명기 1장에서 40년 광야생활의 원인(비극)을 조직화 문제로부터 발단을 찾습니다.

조직화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있는 위치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는 본문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공동체로서만이 아니고 공동체에 관여하셨던 것처럼 나 개인에게도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들어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조직화의 유혹을 걷어버리고 모든 개인이 십자가를 붙잡아서 백만 명의 모세와 솔로몬이 각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